

## 치 사

우리 불교출판을 통한 불교문화 선양을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출판인들을 비롯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전을 옮겨 적는다는 의미의 사경은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경전을 필사하여 책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아마 불교출판의 시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경의 공덕은 대원을 성취하게 되며, 항하사의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더욱 더 수승한 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불사를 사명으로 삼고, 이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문화강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문화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1700년 한국불교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의 사찰문화와 무형의 불교교리, 수행법 등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 가장 보편성과 우위를 담보하고 있어 세계인들이 먼저 찾아와 보고 들으려 합니다.

불교출판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무거운 책무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안 걸어왔고, 또 가시고자 하는 길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의 선봉장이라는 자부심과 수행인의 자세로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하는 출판사를 비롯한 불교출판인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3(2009)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